

(사)한국포장협회는 환경문제, 특히 업계의 포장폐기물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원사 대상의 폐기물 공동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회원사를 위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15만원에서 47만원으로 일정하지 않다.

▲ 처리 비용이 고가이므로 제품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적기 수거가 되지 않아 폐기물이 적체되고, 이에 따라 처리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늘게 되며 작업

### 폐기물 공동처리사업 추진

#### 시화단지내 부지확보 노력

상 애로도 크다.

▲ 폐기물의 다량 적체로 화재 위험이 있고, 악취 발생으로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별 업체가 해결하기보다는 협회가 주관해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어 왔던바, 협회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공동처리장 건설을 올해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해결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시화지구내 약 13만평 규모의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재활용단지 내에 1만2천평을 소각단지로 지정하여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회에서는 폐기물 공동처리장 건설의 선결과제인 부지 확보를 위해 이 시화지구 내의 소각단지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화사업본부 등 관련기관 방문 조사와 관계 법규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6월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화단지입주 분양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사)한국포장협회는 5월중 전국 그라비아인쇄 업체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 이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그라비아인쇄의 직업훈련직종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조사에 응한 76.8%가 그라비아인쇄 업체의 발전 전망이 있다고 대답했다. ▲ 그라비아 인쇄에 대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는 97.9%

### 그라비아인쇄업체 실태조사

#### 직업훈련직종 신설 건의키로

에 이른다.

또한 그라비아인쇄 업체의 경영난으로는 인력수급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4.7%), 기술과 품질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대체로

그라비아인쇄에 대한 직업훈련원 등에서의 교과 채택이 장기적으로 볼 때 '3D현상'으로 인한 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그라비아인쇄 부문에 대한 자격검정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원 등에서의 그라비아인쇄 직종 신설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